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 2005년 이후를 중심으로

오철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이경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 요약 》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수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149편을 대상으로 학술지별 발표 편수, 발표 연도, 연구대상 장애유형, 연구방법, 표집된 연구대상, 연구대상 교육과정 유형, 그리고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표된 총 논문의 편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고 연구방법은 양적 조사연구와 문헌/이론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인적 연구대상으로는 특수학급 교사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국제 비교연구는 일본과의 비교연구가 제일 많았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으로 연구가 가장 많았던 교육과정 유형은 기본교육과정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청각장애-중도·중복 장애 교육과정 순으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영역 변인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영역 분야에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방향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의 연구대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내밀한 현상을 담을 수 있도록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우리 실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 특수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동향, 교육과정 개정

* 제 1저자 (nugim33@naver.com)

** 교신저자 (shinkiha@dankook.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정의 의미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교육과정의 의미를 한 마디로 명쾌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학용어사전’(1995)에 의하면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 까지 요구되는 교육목표·교육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연한과 연한 내에 있어서의 학습시간 배당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서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교과학습 및 생활영역의 총체를 뜻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도순, 홍후조(2004)는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서류로 보는 견해도 있고 교육자들의 생각 속에는 있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계획까지 포함시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은 정의도 다양하며 또 제정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 수준이 존재한다. 그 중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이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주입될 수는 없다. 즉 그것이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을 보면 지역 교육청 수준의 편성운영지침, 학교 교육 과정, IEP나 수업지도 계획 등 다단계 수준을 거치면서 구현이 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며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광범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 전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학문적으로 ‘교육과정학’이라는 연구영역이 자리를 잡았으며 일반교육계에서는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가 배출되고 있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특수교육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2010년(총론)과 2011년(각론)에 고시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다. 1974년 1월 31일에 처음으로 기본교육과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신박약 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래 40여 년 동안 분리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의 연구 주제와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박은송, 한성희(2008)가 시각장애 분야의 교육과정 연구 33편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바 있으나 특정장애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김정혜, 박창언(2013)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는 ‘기본교육과정의 적합성, 기본교육과정과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및 목표, 교육과정 운영실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일반교육간 교육과정 논의가 활발한 최근에 김지영(2012)과 김수현, 이숙향(2013)은 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크게 보면 특수교육의 경계 안에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본연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동향분석으로는 박은송, 김삼섭(2009)의 연구가 있는데 동 연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디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과거 연구 113편을 대상으로 장애범주별, 연구방법별 현황 등 일반적인 연구 동향과 함께 교육과정의 ‘내용, 경험, 환경’과 특수교육과정 모형 등을 분석 틀(framework)로 적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그 이후 2010년 총론 개정, 2011년 개정과 2012년 부분개정 등을 겪고 현재 2015 개정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학문 영역의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또한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 연구의 틀이 계속 진보하는 것을 고려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새로운 틀을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약 10년 동안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야의 학술 연구 동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해야할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의 일반적인 동향은 어떠한가?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의 연구영역의 분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문헌 선정 기준 및 절차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가 그러하듯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고 복잡적일 수밖에 없다.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볼 수도 있고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 학급 수업의 수업계획에 이르기까지를 교육과정이라고 넓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주축으로 하여 지역 교육청의 지침, 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며 실제 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구현되는 공식적이며 의도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의 분석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10여년 사이에 발표된 한국특수교육 학회와 그 분과학회의 학회지 7종과 기타 등재후보지 이상의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8종 등 총 15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peer-reviewed article)을 대상으로 한다. 박은송, 김삼섭(2009)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최초 공포 시기부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바 있으나 본 연구는 분석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여 최근의 연구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은 제외하였다.

둘째, 논문의 검색은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교보문고 스콜라, 학지사 뉴논문 등에서 원문이 제공되는 논문으로 하였다.

셋째, 논문 검색은 1차적으로 주제어 검색으로써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으로 하여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 2차 검색은 제목 검색으로써 ‘장애’ or ‘지체’ + ‘교육과정’ 검색을 하여 검색된 논문들 중 연구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넷째, 검색 결과에는 나왔으나 연구대상 논문 선정에서 제외시킨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재 정체성과 학령기를 고려하여 치료교육 및 치료지원을 주제로 다룬 논문과 유아 특수교육 논문은 제외하였다. 평가와 관련된 논문도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검색결과 도출된 연구들이 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순수한 교육평가 연구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교수 방법론에 관한 연구나 기타 특수교육 교육과정 본연의 주제 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주제의 연구들도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한 결과 1차 검색에서 129편, 2차 검색에서 20편, 합계 149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문헌분석 기준 및 자료처리

1) 분석기준의 설정

연구는 일반적인 동향과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동향 분석의 기준으로는 (1) 발표 학술지, (2) 발표연도, (3) 연구방법, (4) 연구대상, (5) 교육과정 유형, (6) 장애유형 등 6가지 변인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의 내용 분석을 위한 변인으로써 (7) 연구영역을 선정하여 총 7가지 변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분석 기준틀

분석기준		분석 유목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이론 연구		국제비교 연구
	연구 대상	특수교사 전체,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급 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교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일반문헌		해당 국가
교육과정 유형	총론 및 미구분	기본교육 과정	공통교육 과정	선택 (직업)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일반(통합) 교육과정	특수-일반 연계
연구영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 이론」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교육과정 · 교과서 분석」		「교수 · 수업 연구」	

2) 『일반적 동향』 분석의 틀

첫째, 발표 학술지는 연구대상 논문이 게재된 특수교육 분야의 13개 학술지별 연구 발표 건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발표연도는 연구대상 기간인 10.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은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급간으로 나누기엔 무리가 있기에 1년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장애유형은 장애유형 분류는 원저자가 연구의 대상이 된 장애유형을 제목이나 본문에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자가 본문 내용을 읽고 추정하여 분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미구분’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은 박민정, 성열관(2011)은 연구방법의 분석 유목을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이론연구 3가지로 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여기에 2가지를 추가하여 총 5개의 유목을 정하였다. 그 하나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실시한 혼합연구이며 또 하나는 국제비교연구이다. 이효자, 정대영, 정동영, 정해동(1998)은 한 나라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해야만 하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향과 내용을 교육개혁과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에서 국제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은 연구의 일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방법의 하위 항목으로서 연구대상을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양적, 질적, 혼합연구인 경우 표집 (sampling) 경향을 알아내기 위하여 표본 집단을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급 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교수' 등으로 분류하였고 복수의 유목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이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수교사 전체'로 분류하였다. 국제비교연구인 경우는 비교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별로 분류하였는데 여러 국가를 함께 연구한 경우에는 복수의 국가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문헌/이론연구의 경우 연구대상 문헌이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문서(교과서 포함)인 경우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로, 그 외의 경우를 '일반문헌'의 총 2개 분석유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 유형은 국가 교육과정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인 경우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에 따른 구분을 하였다. 박은송, 김삼섭(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유형을 교과, 치료교육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4 영역으로 분류하였던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제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교육과정과 일반교육과정으로서의 공동교육과정 내용을 함께 분석 하여 그 상호관련성을 찾고자 한 연구 및 고시된 교육과정 내용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과정간의 통합 및 상호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특수-일반 연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통합교육 상황에서 일반교육과정을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주제에 관한 연구는 '일반(통합)교육과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일반(통합)교육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수정된 영역을 말하는 특수 교육과정의 '공동교육과정' 코드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연구 및 기타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포괄적인 연구들을 '총론 및 미구분'으로 분류하였다. 외국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도 우리나라 체제에 따른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저자가 특정 교육과정 영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총론 및 미구분'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영역』에 대한 내용분석의 틀

박민정, 성열관(상계서)은 교육과정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내용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을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내용분석이 방대한 자료의 전체적인 패턴, 내용을 분류해내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구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교육과정 이론',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교수·수업 연구', '교육과정 연구방법론' 등 총 6개 유목을 도출하였다. 이는 각 논문에서 추출된 하위유목을 개념간의 유사성 정도와 포괄성 수준에 따라 유목화하여 상위개념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그들의 분류유목에 대해서 송성민(2013)은 직접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개발했다는 점과 과거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분석기준들을 총망라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였는데 본 연구 역시 그 6가지 ‘연구영역’ 분석유목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차용하되 특수교육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주요 수정 내역은 우선 연구영역의 6개 하위 분석유목 중 하나인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라는 유목 명칭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개발’과 ‘설계’가 용어 의미상 중첩되는 면이 있으며 동 유목의 세부내용을 볼 때 ‘현장 운영 실태’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연구 방법론’ 유목은 송성민(상게서)의 지적대로 ‘일반적인 교육과정학의 관심 주제 영역(p. 130)’으로서 특수교육과정 연구에 나타나지 않았기에 삭제하여 5개 분석유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표 2〉 연구영역의 분석 유목과 세부 내용

분석 유목	세부 내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 내용 구성 방향, 교육내용의 적정화, 학교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실행의 문제점, 교육과정 정책 및 개혁, 교육과정 통합 및 일반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 정책 국제 비교연구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 철학 및 모델,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교사정체성, 교사지식, 교사학습,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체제 및 내용분석, 교육과정·교과서 비교연구, 교육과정 내용 국제비교연구, 교육과정의 적합성, 교과서 개선 방안, 교과서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수·수업 연구	수업개선을 위한 교수법 연구, 수업설계, 교수이론, 학습이론, 학습방법 및 전략, 학습효과 분석

4) 코딩(coding) 및 분석절차

코딩 및 분석 작업은 2명의 공동연구자가 8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달간 진행하였다. 특히 주요 연구변인인 연구영역에 관해서는 내용분석의 특성상 코더(coder)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컸다. 따라서 제 1연구자는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체 원고를 5회 이상 반복 분석하며 상세한 코딩 기준(coding scheme)을 정립하였고 동 기준을 공동연구자에게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영역의 각 분석유목별 코딩 기준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교육 접근, 교육과정 통합 및 일반교육과정의 재구성 등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포함시켰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분석이나 적합성에 관련된 연구와 교과서에 관련된 연구는 「교육과정·교과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정체성, 교육과정에 실행에 대한 인식 연구들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으로 코딩하였는데 단, ‘교사의 인식’을 변인으로 채택한 연구라도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 연구는 앞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항목으로 코딩하였다. 「교수·수업 연구」에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수업방법, 교수적합화 (혹은 교수적 수정) 등의 노력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주된 관점 및 교육과정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 이론」 항목으로 코딩하였다. 하나의 논문이 복수의 연구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본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장 주된 항목 하나로만 분류하여 단순 명료한 동향 파악을 추구하였다.

코딩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각각의 변인, 즉 각 분석의 틀(기준)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한 개의 분석 틀 적용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2개의 분석 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3. 신뢰도

내용분석 결과 신뢰도의 평가를 위하여 복수의 코딩자 간의 일치도를 구하였고 신뢰도 공식은 $[(\text{일치된 수}) / (\text{일치된 수} + \text{불일치된 수}) \times 100]$ 에 의해 산출하였다. 코딩자간 일치도는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하여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인 연구 동향의 6가지 변인에 대해서는 98~100%의 일치도를, 연구영역 항목에서는 91%를 기록했다. 일치하지 않은 코딩에 대해선 먼저 불일치의 원인을 파악하여 기준을 재정립하고 공동연구자가 공동으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코딩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동향 분석

1) 게재학술지 분석

분석대상 논문의 학술지별 게재 편수는 ‘특수아동교육연구’가 가장 많아서 33편(22%)을, ‘지적장애연구’가 그 다음으로 32편(21%)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22편)과 ‘특수교육학연구’(17편)가 그 뒤를 이었다.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15종의 학술지 중 1편 이상의 분석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13종이었다.

2) 연도별 발표 추이

연도별 발표 논문 편수는 2009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해에는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 고시되었으며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10(총론) 및 2011(각론) 개정을 앞둔 시점이었다. 특히 동 개정시기부터는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 과정을 1년 앞서 발표된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같은 시점에 적용하기로 하여 개발에서 실제 적용시점까지의 준비기간이 짧았던 점도 학계의 관심을 촉발했던 요인 중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도별 발표 현황은 <표 3>와 같다.

<표 3> 발표연도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발표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15.7월	계
편수	8	12	7	7	18	15	21	18	14	24	5	149
백분율 (%)	5	8	5	5	12	10	14	12	9	16	3	100

3) 연구방법의 동향

양적연구인 조사연구가 가장 많아 58편(39%)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문헌/이론 연구로서 37%였다. 실증자료 없이 행하는 문헌/이론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 교육과정 연구의 전반적인 특징인 듯하여 박민정, 성열관(상계서)의 일반교육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높아서 66.8%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박민정, 성열관

(상계서) 연구는 국제비교연구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국제비교연구를 포함할 경우 문헌/이론 연구는 46%에 이르게 되어 양적연구를 초과하게 된다. 문헌/이론 연구는 특정 교과(사회과) 연구동향을 분석한 송성민(상계서)의 연구에서도 62.7%로 높게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11%인 17편이며 질적, 양적 혼합연구가 3편이 있었다. 기타 방법에는 행위자 기반 모형 연구 2편과 단일대상연구 1편이 포함되었다. 일반교육과정 연구동향과 비교해 보면 박민정, 성열관(상계서)의 일반교육과정 대상 연구에서는 질적연구(26.6%)가 양적연구(6.6%)보다 우세하였으나 송성민(상계서)의 연구에선 양적연구가 26.7%로서 질적연구 10.7%보다 높아서 결과가 엇갈리게 나타난다. 어느 연구와 비교하든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구는 양적연구인 조사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 연구방법의 다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연구방법별 연구대상 논문의 게재편 수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방법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양적연구	문헌/이론연구	질적연구	국제비교연구	혼합연구	기타	총합계
편수	58	55	17	13	3	3	149
백분율 (%)	39	37	11	9	2	2	100

4)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1)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의 인적 표집 분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혼합연구들의 인적 연구대상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를 모두 표집한 경우는 12편이었으며 특수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표집한 논문은 45편이었고 특수학급 교사만을 표집한 논문은 16편이었다.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보면 특수학교 교사(7,863)보다 특수학급 교사(9,868)가 2,005명(25%)이 더 많은 점이나 2010년 개정부터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등 통합교육 환경을 지향하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 교사를 표집한 연구가 특수학급 교사를 표집연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은 이채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상당수는 특수학교 상황을 전제로 한 연구로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정체성이 반영된 자연스런 연구동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표집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를 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향후 연구에서 통합교육의 보편화에 맞물려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표집을 확대시킴으로써 표집의 다양성과 무선성(randomness)을 높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양적인 측면에서 특수교육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특수학급의 경우 학생 구성 및 교육과정 운영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대량 표집에 의한 설문지 조사와 통계적인 분석을 위주로 하는 현재 연구에서 연구결과가 학교현장의 현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즉 더욱 세심한 연구 설계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의 선정 및 표집방법상의 심도 있는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에 학부모를 포함시켜 실시한 연구는 단 1편 (한홍석, 강성중, 2005) 뿐이어서 연구대상의 저변을 넓힌 시도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분석대상인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논문들의 인적 표집에 대한 상세한 분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인적 표집 분포

	특수교사 전체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급 교사	일반교사	교수	학부모	계
사례수	12	45	16	8	2	1	84
백분율 (%)	14	54	19	10	2	1	100

(2) 국제비교연구

국제비교연구를 분석 대상 국가별로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본에 대한 편향성이다. 국내 특수교육 연구의 전반적 동향이 미국의 학문적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으나 교육과정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낮은 비중을 보인 것은 미국의 경우 국가수준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단편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비교 논문 13편중 과반이 넘는 8편의 논문이 비교대상국으로 일본을 택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준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제인 점 등 교육과정 체제가 유사하여 비교하기 쉬운 것과 상대적으로 교류가 용이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추이가 일본을 모델로 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국가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동일, 이태수(2007)가 북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 것도 국제비교연구에 포함하였다. 상세한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국제비교 연구의 대상국 분포

비교국	일본	독일	호주	중국	영국	북한	미국	홍콩
사례수	8	3	2	2	1	1	1	1

(3) 문헌/이론 연구

문헌/이론 연구의 대상별 분포를 보면 정부기관에서 고시하고 편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직접 분석한 연구가 38건으로서 순수 이론 문헌에 대한 연구(17편) 보다 많았다.

5) 교육과정의 유형별 연구동향

교육과정 총론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특정 교육과정을 명기하지 않은 포괄적인 연구인 총론/미구분이 가장 많은 68편(46%)으로서 특정 교육과정을 명기한 60편보다 더 많았다. 특정 교육과정 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이 가장 많은 45편으로서(7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정체성 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전병운(2014)은 2011 개정 기본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분리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한바 있다. 그 외에 공통교육과정이 8편으로서 그 대부분(6편)은 청각장애에 집중되어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의 장애특성에 맞게 수정한 공통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에 관한 공통교육과정 연구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 영역 5편중 2편은 직업(선택)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이며 1편은 시각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로 분류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舊 특별활동, 재량활동 포함) 관련 연구는 4편이며 장애학생용 직업교과인 선택교육과정은 시각장애 관련 2편을 포함하여 총 3편이었다. 총 149편의 논문에 대한 교육과정 유형별/장애유형별 논문 발표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교육과정 유형별/장애유형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지적장애	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건강장애	일반/미구분	계
기본교육과정	12		3	1					29	45
공동교육과정		6							2	8
창의적 체험활동	2								2	4
선택(직업) 교육과정		1		2						3
특수-일반 연계	1								10	11
일반(통합) 교육과정	1			1					8	10
총론/미구분	8	7	10	1	2	4	1	2	33	68
계	24	14	13	5	2	4	1	2	84	149

국가수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연도별 논문 발표 추이를 보면 특히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2014년 1년간 14편이 발표되어 연 평균의 3배를 상회하였다. 이는 동 년도에 2015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서 ‘총론 기초 연구’ 등을 시작하는 등 2015 기본교육과정 개정작업에 임박하여 그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세한 현황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형별/발표연도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2015.7월	총계
기본교육과정		2	1	1	6	4	6	5	3	14	3	45
공동교육과정	1	3				1	1			1	1	8
창의적 체험활동	2				1					1		4
선택(직업) 교육과정			1			1		1				3
계	3	5	2	1	7	6	7	6	3	16	4	60

6) 장애유형별 분석

총 149편 중 56%인 84편이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장애유형을 명확히 밝힌 사례만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장애영역은 지적장애로서 24편(37%)를 차지했다. 공통교육과정 수정 대상 장애유형인 감각장애, 지체장애의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는 22%로 높았던 반면 시각장애는 5편(8% : 시각중복장애 2편 포함)이었고 지체장애는 2편(3%)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중도·중복장애가 13편(20%)으로 분류되었다. 2014 특수교육실태 조사를 보면 82,535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지적장애(정신지체)가 44,309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지체장애로서 10,814명으로 많았는데 법적으로 지체장애로 분류가 되더라도 현실의 학문적 연구에선 장애의 중도·중복화 경향을 반영하여 대부분 중도·중복장애로 분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연구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05-2010년까지 6개년간 3편에 불과했던 반면 2010년(총론), 2011(각론) 개정 이후인 2011년 이후에 10편이 발표되어 해당 장애영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이 명기된 연구 65편중 지적장애, 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 3유형이 51편(79%)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 발표연도별 분석대상 논문의 발표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장애유형별/발표연도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2005-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계	백분율 (%)
지적장애	10	3	5	5	1		24	37
청각장애	6	2	1	2	2	1	14	22
중도·중복장애	3	2	2	4	1	1	13	20
시각장애	3	1	1				5	8
지체장애	1	1					2	3
자폐성장애	1				3		4	6
건강장애	0		2				2	3
정서행동장애	0				1		1	1
계	24	9	11	11	8	2	65	100

한편 장애유형과 연구영역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면 시각장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장애특성과 중도·중복화 경향 등으로 인하여 공통교육과정 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황정현, 2011; 이덕순, 2010)이 있었다. 그리하여 김영일(2015) 등은 보편성에 치우친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미국의 확대중핵 교육과정(Expanded Core Curriculum : ECC) 도입과 같은 시각장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정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청각장애 영역은 소위 '고원현상'이라고 하는 낮은 학력 성취에 대한 문제의식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각장애보다 더 활발하다. 권순우(2005), 강창욱(2011), 권순황(2012) 등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수요자의 요구 사이의 불일치 등 청각장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바 있다. 중도·중복장애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영역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분야의 논의가 활성화 된 시기가 가장 최근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유형별/연구영역별 상세한 논문 발표 현황은 <표 10>와 같다.

<표 10> 장애유형별/연구영역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교수· 수업연구	교육과정 ·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이론	총합계	장애 출현율 (%)
지적장애	4	7	2	8	3	24	60.0
청각장애	7	2	1	4		14	4.6
중도·중복장애	9	2		2		13	N.A
시각장애	1	2		2		5	2.6
지체장애	2					2	14.6
자폐성장애	1	3				4	12.0
건강장애	2					2	2.7
정서행동장애	1					1	3.5
계	27	16	3	16	3	65	100

* 장애출현율은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상기 장애영역만으로 산출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는 상기 장애출현율 산출에서 제외)

2. 연구영역 분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아서 63편(42%)을 차지했는데 연구기간 동안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연구는 미국의 학문적 동향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정동영(2009), 이덕순, 정희섭(2010), 강성중, 김용욱(2010), 권현수(2014) 등은 미국을 위주로 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전면적 혹은 부분적 근거로 들면서 국내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수십 년의 시간과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루어졌던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진보를 우리의 경우 국가 주도하에 단시일 내에 따라가려 한 경향이 있다. 현재 거듭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겪는 국내 특수교육학계가 이러한 ‘압축성장’에 따른 미진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났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면서 정부의 리더십에 의하여 많은 학자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이슈화가 가능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교과서 분석」은 이미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는 변인인데 2011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인 2012년-2015년 7월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25편(53%)으로서 두 배 기간인 2005-2011년의 7개 년 간 발표된 22편보다 많다. 이는 또한 전체 논문 중 2012-2015 사이에 발표된 논문의 평균 비중이 41%인 것 보다 10%이상 높은 수치로서 2011 개정 교육과정(각론)이 발표된 이후 그 적합성에 대한 높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숙향(2013)은 2010(총론), 2011(각론) 개정에 대하여 학계와 교단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그 개발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고 김영표, 김라경, 강종구(2012), 고진복, 전병운(2013), 고진복(2014), 이동원, 이숙정, 조해란(2015)등이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영역과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영역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로서 전체연구의 2/3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2영역 모두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특수교육학계, 특히 교육과정 연구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큼을 방증한다.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2011년 이후 증가하였다.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혹은 ‘실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김정혜, 박창언(2013), 정윤우, 정동영(2012a, 2012b), 최성규(2012), 권주석(2011), 이윤미(2013)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 및 특수교육-일반교육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논의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과정 연구의 폭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혜, 박창언(2013), 정윤우, 정동영(2012b)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교사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학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는 교육의 실패원인을 교육과정 자체에서 찾기 보다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을 중시

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하여 정운우, 정동영(2012b)은 특수학교 교사와 비교하여 “특수학급은 교사 1인의 책임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실행과 운영에 어려움”(p. 214)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이윤미, 조인수(2011)는 중등 특수학급 수업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고 또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아니지만 장은주(2014)는 교사들이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하기가 어려워하는 현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연구만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완벽한 교육과정이 있을 수 없다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능력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이다. <표 1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연구방법이 조사연구에 편중(79%)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교수·수업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교실 수업장면에서 실천하기 위한 교수방법론에 관한 연구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수·수업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이론」은 발달주의, 기능주의, 교과교수 등 미국 학계에서 일어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주도했던 교육과정 철학과 역사적 변화를 소개하는 연구들이다. 연구영역별/연도별 분포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 11>에 제시하였다.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교수·수업 연구」 분야는 실제 수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문헌/이론 연구들과 양적 조사연구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질적연구와 혼합연구 방법을 택한 다수(65%)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연구로서 교육현장의 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개발에 시사점을 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영역별/연구방법별 연구대상 논문의 분포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1> 연구영역별/발표연도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05~ '08	'09	'10	'11	'12	'13	'14	~'15. 7월	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	8	6	9	5	6	6	2	63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5	6	7	4	8	3	11	3	47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3	3	1	6	4	5	6		28
교수·수업 연구	3	1	1		1		1		7
교육과정 이론	2			2					4
계	34	18	15	21	18	14	24	5	149

<표 12> 연구영역별/연구방법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양적 연구	문헌/이론 연구	질적 연구	국제 비교연구	혼합 연구	기타	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	23	10	6	3		63
교육과정 · 교과서 분석	13	24	1	7		2	47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22	1	5				28
교수 · 수업 연구	2	3	1			1	7
교육과정 이론		4					4
계	58	55	17	13	3	3	149

연구영역과 교육과정 유형을 연관시켜 보면 이미 앞에서 2011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언급했던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연구영역 분석을 통해서도 「교육과정 · 교과서 분석」 분야에 28편이 집중(62%)되어 있으므로 그 핵심이 적합성 연구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교수 · 수업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2편)보다도 교육과정 적합화(curriculum adaptation), 혹은 교육과정 수정을 통해서 일반(통합)교육과정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수하기 위한 연구(이은정, 이소현, 2006, ; 이은주, 2010 ; 강경숙, 김희규, 최세민, 유장순, 2006)가 3편으로 더 많았다. 그런데 그 3편 모두는 초등학교 교실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수현, 이숙향(2013)은 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연구 대부분(82%)이 초등학교 교실 수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중등교육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일반(통합)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교수 · 수업 연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세한 현황은 <표 13>와 같다.

<표 13> 연구영역별/교육과정 유형별 연구대상 논문의 수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직업)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특수-일반 연계	일반(통합) 교육과정	총론/미구분	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7	3	1	2	5	4	41	63
교육과정 · 교과서 분석	28	4	2	2	5		6	47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8					3	17	28
교수 · 수업 연구	1	1			1	3	1	7
교육과정 이론	1						3	4
계	45	8	3	4	11	10	68	149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서 최근 10년간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의 일반적인 동향과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동 분야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연구의 건수는 2009년부터 증가하여 그 이후 매년 2자리 수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인 조사연구가 58편으로써 39%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헌/이론연구였다. 인적표집(sampling) 대상은 ‘특수학교 교사’가 45편으로서 ‘특수학급 교사’의 16편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즉 전체적인 연구방법상의 주된 흐름은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과정 유형별 분포를 보면 기본교육과정이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가 뒤따르고 있었다. 연구의 주제별로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육과정·교과서 분석」이 많았다. 국제비교 연구는 비교대상국이 일본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교대상국의 저변을 확대하고 비교의 요인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다면적, 입체적인 국제비교연구를 추구해야 한다. 「교수·수업 연구」는 보편적 학습설계와 교육과정적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해당 연구 분야에서 동 주제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연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교육 교육과정 학자들과의 협동 연구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교육계가 아닌 일반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이은주(2010)의 연구 등은 의미가 있다. 장애학생을 위한 일반(통합)교육과정 적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재 초등학교 교실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149편의 연구 중 연구대상에 학부모가 포함된 것은 단 1편 뿐이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에 기반을 둔 연구동향이 정착해야 하고 연구대상이 다변화 되어야 한다. 이숙정(2014)은 ‘백년지대계’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각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는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과 다를 수 있기에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폭넓게 파악하여야만 교육과정과 실제 생활과의 기능적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강복순 부대표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토론회’ (2015.8.7.)> 연구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삶이라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의 “My son identify saturn, but Can't Brush Teeth.” 발언을 인용하였던 Ayres, Lowrey, Douglas, Sievers (2011) (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윤광보(2011)는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절차는 정부 주도 형태로서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 관점이 달라지며 최종산출도 달라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아울러 유사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개정을 주도할 경우 “특정 이론이나 관점에 편향될 우려가 높으며(114p)” 이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와 교원을 개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특수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강복순 부대표도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자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당사자들의 의견도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연구동향이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돌아켜 보게 한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교육과정 연구자들 개개인이 연구대상의 저변을 확충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상시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연구방법의 주 흐름은 문헌/이론연구와 조사연구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나 「교수·수업 연구」와 같은 학교와 교실의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혜, 박창언(2013)은 김순은(2007)을 인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실태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정도에 대한 조사연구는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한정되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숙정, 이경아(2007)는 김병하(2000)를 인용하면서 교육 현상을 객관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연구방법으로 수량화 할 경우 포착할 수 없는 현상에 내포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이면서도 정작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학부모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도 질적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특수교사 대상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조건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인적 표본의 대부분(87%)을 차지하는 것이 특수교사들이다. 최성규(2012)는 같은 특수교사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가

크다고 하였다. 특수교사 대상의 연구물이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특수교사들이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김정혜, 박창연(2013)은 교육당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 수립시 학교 교사의 의견개진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특수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향상을 전제로 한다. 현장 특수교사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성공적이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지는 않으며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들의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

특수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인력의 ‘pool’을 조성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각 시·도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사들도 자체적인 연구회 구축과 참여를 주도해야 한다. 교육과정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타당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윤광보 (2011)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 형성과정에서 Cobby, Ross, Ross(1976)의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top-down 방식인 “정부주도의 ‘동원 모형’(112p)”이라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풀뿌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주도 모형’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우리 실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로서 이는 우리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의 방향성 제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다수 연구자들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채 다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 2011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윤광보(2011)는 국내 특수교육과정 연구동향이 “미국의 교육과정 정책과 이론을 많이 참고하는 경향 (115p)”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와 미국은 특수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상이하다. 선진 외국에서 정착한 제도라 하더라도 교육풍토가 다른 우리가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교육풍토에 맞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기존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용 중 무엇이 우리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과 성인기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지 못했는지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밝혀내는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일반교육의 교육과정인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띠기에 일반교육과정 개정 시 마다 후속적으로 (수시)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제정에 현실적이고 적합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학문적 동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연구물들을 선별하는 수단으로써 제한된 검색어에만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 대상논문의 연구주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영역’을 분류함에 있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하나의 유목으로만 분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전체 연구 건수 대비 비율이나 빈도 등의 분석을 단순화하여 명확한 동향 파악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복수의 코딩을 인정하는 방식에 비하여 전체 연구들의 다양한 동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 단점이 있었다. 연구영역의 분석기준은 박민정, 성열관(상계서)의 분류유목을 차용했으나 이는 일반교육 교육과정 연구의 분석기준으로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에 더욱 타당한 독자적 분석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숙, 김희규, 최세민, 유장순 (2006).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수정방법 및 사례. **특수아동교육연구**, 8(2), 1-27.
- 강성중, 김용욱 (2010).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동행 제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253-278
- 강창욱 (2011). 청각장애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275-297.
- 고진복, 전병운 (2013). 정신지체 특수학교 초등학생의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쓰기 영역의 수행수준 실태. **특수아동교육연구**, 15(4), 219-244.
- 고진복 (2014) 정신지체 초등학생의 국어과 듣기 말하기 영역 성취기준의 수행수준. **특수아동교육연구**, 16(2), 311-334.
- 교육부 (2015).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201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토론회 자료집**.
- 국립특수교육원 (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 국립특수교육원 (2004).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제 동향 분석**.

- 권순우 (2005). 청각장애 학교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0(3), 23-44
- 권순우 (2015). 청각장애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2015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76-82.
- 권순황 (2012). 청각장애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합성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4), 465-481
- 권주석 (2011).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실천지식과 이해 수준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23-39
- 권현수 (2014). 미국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과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발전방안 탐색. **특수교육**, 13(2), 43-73
- 김동일, 이태수 (2007). 북한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3), 149-165.
- 김수현, 이숙향 (2013). 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중재요소 및 연구동향 고찰. **초등교육연구**, 26(4), 1-30.
- 김영일 (2015) 시각장애학생 교육, 공통교육과정만으로 충분한가? **한국특수교육학회 2015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50-56.
- 김영표, 김라경, 강종구(2012).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와 일본 지적장애 교육과정 수학과의 내용 비교. **특수교육개발과학연구**, 51(4), 207-227.
- 김정혜, 박창언 (2013).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 분석. **학습장애연구**, 10(3), 105-128.
- 김지영 (2012). 교육과정 수정 연구 동향 및 실험 연구 분석: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523-541.
- 박도순, 홍후조 (2004).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 문음사
- 박민정, 성열관 (2011). 교육과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4), 25-46
- 박은송, 김삼섭 (2009). 국내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구의 동향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2(4), 407-427.
- 박은송, 한성희 (2008). 시각장애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시각장애연구**, 28(1), 89-108.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 용어사전**. 춘천 : 하우동설
- 송성민 (2013). 사회과 교육과정 연구의 동향 분석. **시민교육연구**, 45(2), 123-159.
- 신현기 (2008).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표준에 대한 가정과 그에 기반한 교육의 실제에 대한 검토. **특수교육연구**, 15(2), 3-31.
- 윤광보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책 수립 방향 탐색. **지적장애연구**, 13(4), 109-139.
- 이덕순 (2010). 시각장애학생 교과교육의 쟁점과 과제. **시각장애연구**, 26(3), 1-24
- 이덕순, 정희섭 (2010).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고찰 : 총론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5(1), 41-60
- 이동원, 이숙정, 조해란 (2015). 2011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과목 "내용 성취기준" 적합성 조사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137-161.

- 이숙정 (2014).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3), 187-211.
- 이숙정, 이정아 (2007). 특수교육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이론과 실제. **지적장애연구**, 9(1), 123-147.
- 이숙향 (2013).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적용 동향 및 쟁점.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제 2차 발표자료집** (pp 83-101). 국립특수교육원.
- 이윤미, 조인수(2011). 중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구성요인 분석. **특수 아동교육연구**, 13(4), 255-286.
- 이윤미 (2013). 지적장애학교 교사가 인식한 교육과정과 수업에서의 실천적 지식의 정향성에 대한 구조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7(4), 1-20
- 이은정, 이소현 (2006). 일반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교수적 루브릭의 적용이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3(1), 67-90.
- 이은주 (2010).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공동협력을 통한 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에 관한 실행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1-29.
- 이효자, 정대영, 정동영, 정해동 (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 장은주 (2014). 특수학교에서의 교과용도서 활용 방안. **현장특수교육**, 21(겨울호), 10-11.
- 전병운 (2014). 한국 특수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과제. **2014년 특수 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12-28). 한국특수교육학회.
- 전병운 (2014).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성격 규정을 위한 논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제 2차 발표자료집** (pp. 64-78). 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영 (2009).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교육과정 통합 쟁점 고찰. **지적장애연구**, 11(4), 227-254
- 정윤우, 정동영 (2012a).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요인 및 지원방안 탐색. **특수교육학 연구**, 47(2), 69-90.
- 정윤우, 정동영 (2012b).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특수 교육연구**, 19(2), 199-221.
- 최성규 (2012). 특수학교 교사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요인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7(3), 201-227
- 한홍석, 강성중 (2005).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사·학부모의 인식 수준. **특수교육연구**, 12(2), 283-308.
- 황정현 (2011). 시각중복장애학생 지도교사의 교육과정 수용에 대한 문화기술지 -기본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1), 217-235
- Ayres, Lowrey, Douglas, Sievers (2011). I Can Identify Saturn but I Can't Brush My Teeth: What Happens When the Curricular Focu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Shifts.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6(1), 11-21.
- Ayres, Lowrey, Douglas, Sievers (2012). The Question Still Remains: What Happens when the Curricular Focu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Shifts? A Reply to Courtade, Spooner, Browder, and Jimenez.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7(1), 14-22

<부록>

연구대상 주요 논문 목록 (연도별)

- 권순우 (2005). 청각장애 학교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0(3), 23-44
- 이숙정 (2006). 독일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1(2), 145-172
- 김종문, 한현민 (2007).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쟁점과 개선대안. **특수교육연구**. 14(2), 31-64
- 정희섭 (2008).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3(2), 71-93
- 이덕순 (2009).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일반학교 교육과정으로의 접근성 고찰. **시각장애연구**. 25(3), 91-123
- 윤광보, 우정한 (2010).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1(2), 93-117
- 박경옥 (201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운영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18(2), 259-282
- 한경근, 성만호 (2012).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사회과 교수, 학습 방법 분석: 기본 교육과정과 공통 교육과정의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4(1), 1-22
- 최성규, 남인수 (2013). 청각장애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청각장애학생과 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조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5(3), 409-426
- 강창욱 (2014). 청각장애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5(4), 291-314
- 이명숙, 김명희, 전병운 (2015). 2011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수업 목표 분석-Bloom의 개정된 교육목표 분류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6(1), 237-260

A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Oh Chul-Jean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hin Hyun-Ki

Dankook University

Kim Lee Kyung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 total of 149 research articles from special education journals to figure out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research trends of the latest 10 years. So we analyzed a number of treatises by each journal, publication year, types of disability, research methods, sampling, curriculum types, and study area as the subject of study. As a result,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was increased from 2009. Quantitative methods and literature or theoretical reviews build the main stream. Researchers preferred special education teachers working in the special education class of inclusion school as a sample. I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Japan was chosen most often as comparable target. Among the national-level curriculum types, the number of researches about 'The Basic Curriculum' for the cognitive disabilities was the most common. When counting the number of treatises based on the disability types, the number of intellectual disability was the most. And deafness, serious/multiple disabilities are followed. In the study area, a factor that can be the theme of a study, many studies have been published in the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and 'curriculum · textbook analysis' area.

Based on these findings, we made 4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irst, when sampling the participant of research, researchers should try to reflect the voices of various stakeholders. Second,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researchers must seek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to hold the unrevealed phenomena of the classroom. Third, actually many researches' main participants are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re are necessary conditions that must be met to receive recognition for validity. That i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re required to improve expertise on curriculum. Finally, the researches that suggest the direction of curriculum revision should be done on the basis of domestic situation.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research trends, curriculum revision

논문 접수: 2015. 11. 03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5. 12. 21